



# 2011년 제주경제전망과 정책목표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봉현

## I. 머리말

경제를 전망하는 일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지역 경제 즉, GRDP의 예측을 위한 방법론에는 크게 연립방정식모형, CGE모형, SVAR모형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경제 및 타지역<sup>1)</sup>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경제이론에 입각한 연립방정식모형이 GRDP 예측을 위한 대표적인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경제의 경우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경제관련 연구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예측모형에 근거하여 매년 연말이 되면 그 다음년도의 한국경제에 대해 전망 수치를 발표하곤 한다. 하지만 제주 지역의 경우는 국가경제와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도구가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분석도구에 의해 지난 2002년부터 제주 지역의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고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개발되어 매월 발표되고 있는 제주경기종합지수를 활용하여 2011년 제주지역 경제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 II. 국내·외 경제여건

### 1. 세계경제 동향

최근 세계경제는 2008년말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벗어나 2008년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국내·외 주요 경제관련 기관들은 평가를 하고 있다. 즉,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 성장으로 돌아선 후 매분기 연율 4%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1분기에는 6%가까이 성장해 경기상승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 인도 등과 같은 신흥시장국이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는 2010년 하반기 이후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을 보면,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이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신흥시장국들의 국가위험도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금융시장은 당분간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제유가와 원자재의 경우는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국제유가는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수요회복 기대감 등으로 인해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

1) 경기도·충청북도·부산광역시 등에서는 연립방정식모형에 의한 전망모형을 수립, 매년 각 지역의 경제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1〉 국내 주요 기관별 2011년 한국경제 전망

으며, 원자재 가격은 곡물가격의 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어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국내경제 여건 및 전망

한국경제는 2010년 상반기까지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반기 중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7.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던 것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 성장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 주요 경제관련 연구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은 하반기 둔화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 수출 및 투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대내적으로 경제회복을 견인해 온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하반기의 경기둔화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2010년 한국경제는 5.9%~6.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하반기 중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의 양호한 경기흐름이 2010년 한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한국경제는 3.8%~4.5%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증가율이 하락하고 설비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한 건설투자 회복세가 미흡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정책효과 축소, 자산가치 상승세 미미, 이자부담 증대 등으로 인해 소비의 큰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Ⅲ. 2010년 제주 경제 진단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반 경제정책의 시의성과 적합성을 판단할 지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경기의 대표적인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바로 지역내총생산(GRDP)이다. 즉, GRDP는 지역경제를 설명하는 가장 유용하고 대표

적인 지표이기는 하지만 속보성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지난 2004년 제주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하여 매월 발표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다양한 지역의 거시경제지표들을 통계적으로 가공하여 종합지수화한 것으로, 경기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GRDP를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간주된다. 하지만 경기종합지수는 통계적 가공치이기 때문에 경기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실체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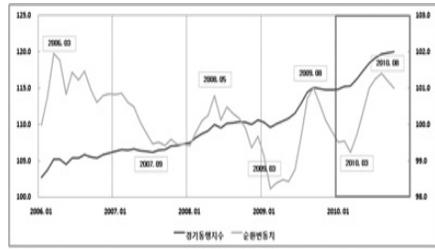
여기에서는 우선, 제주의 경기종합지수를 통해 2010년 제주경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 큰 틀에서 살펴보고, 이후 제주경제의 각 부문별로 세부적인 진단을 진행하고자 한다.

## 1. 2010년 제주경제의 종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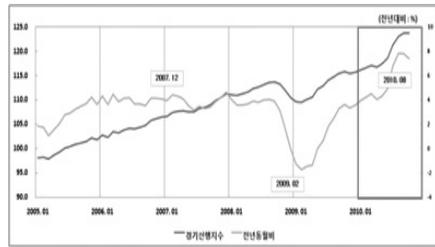
2010년 제주경제는 한마디로 '지속적인 경기 상승 기조'에 있었다라고 평가될 수 있다. 경기의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동행지수를 보면, 2010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순환변동치를 보면, 지난 8월부터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가 2010년 하반기 들어 둔화 조짐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향후 제주지역 경기를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수를 보면, 역시 상승을 지속해왔으나, 전년동월비는 8월 들어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도 향후 제주경기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경기 전환의 신호가 아니냐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선행지수 및 전년동월비〉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경기종합지수」, 각 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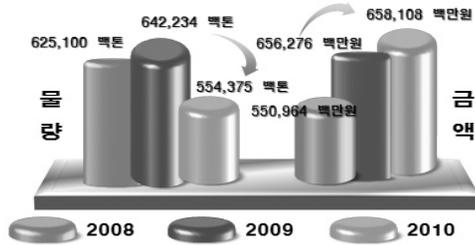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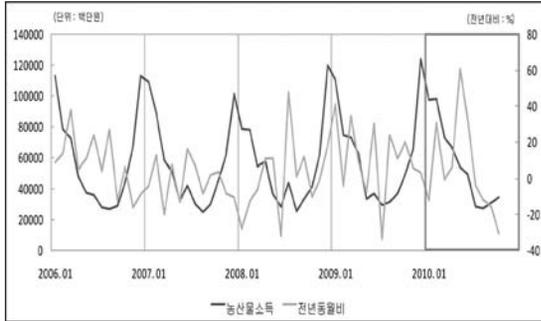
〈그림 2〉 제주경기종합지수의 추이

## 2. 부문별 평가

### 1) 농업

제주지역 산업부문의 가장 대표적인 농업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주농업은 주작물인 감귤출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농업의 생산은 일정한 주기적 특징인 계절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기상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두드러진 반면, 가격상승에 의해 전반적으로 조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주 : 농산물 계통 출하 기준이며 2010년은 잠정치임  
 자료 :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그림 3〉 연도별 제주지역 농산물 생산 실적

## 2)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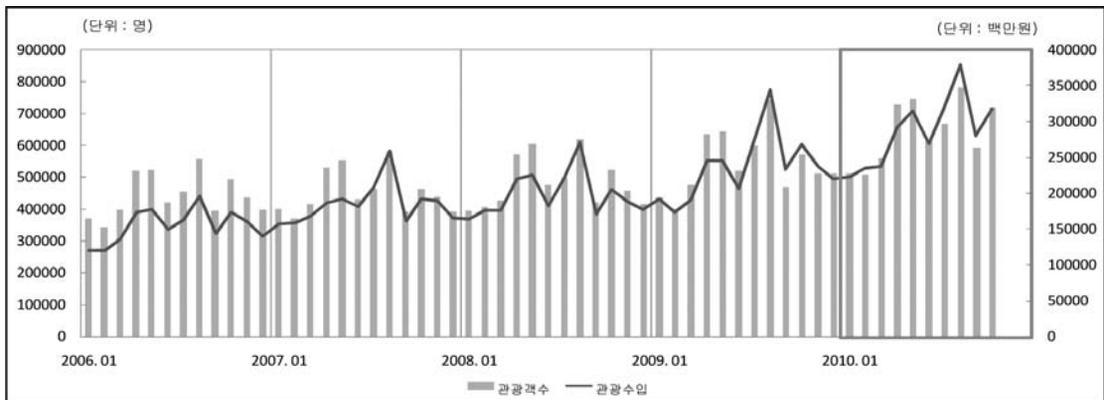
700만 명 돌파라는 사상 최대의 관광객 수를 기록한 2010년은 그 영향으로 인해 관광관련 서비스업이 호황을 누린 것으로 평가된다. 관광객 수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8.3%나 증가했으며 관광수입도 21.8%나 증가하였다. 내국인 관광객은 교육여행 목적인 수학여행과 레저 스포츠 목적인 전지훈련, 그리고 올레길 투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 70.6%나

증가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1〉 연도별 제주지역 내·외국인 관광객 수 현황

구분	2010년	2009년
관광객수(명)	7,719,124(18.3)	6,523,938
내국인	6,911,084(17.3)	5,891,584
외국인	808,039(27.8)	632,354
관광수입(백만원)	3,444,607(21.8)	2,828,294
내국인	2,553,226(21.5)	2,101,847
외국인	891,382(22.8)	726,447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추이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그림 4〉 연도별 제주지역 관광객수와 관광수입

이렇게 관광객 수가 증가한데 따라 관광관련 서비스업들도 지난해에 비해 호황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일평균 렌터카가동대수, 월평균 전세버스가동대수, 중문관광단지내 숙박시설 투숙객 지표가 모두 지난해에 비해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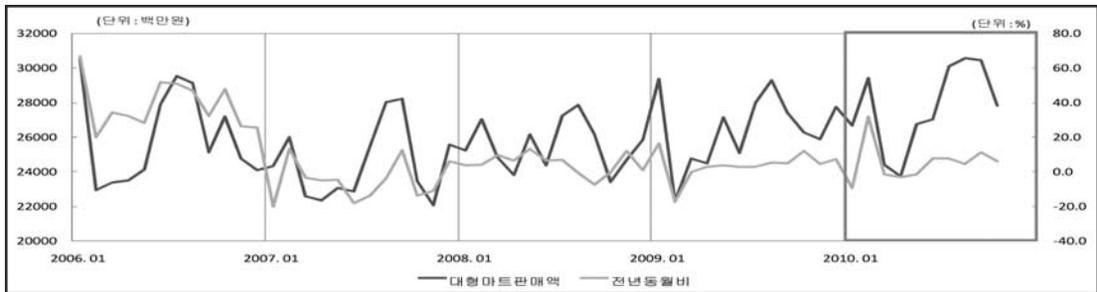
고용은 2008년 이후 전반적인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지역의 비농가취업자수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현재 21만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각 산업별로 보면, 농림수산업과 건설업 취업자수를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지난해에 비해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관련 서비스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표인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취업자수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의 단적인 증거로 제주지역 고용부문의 총체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4)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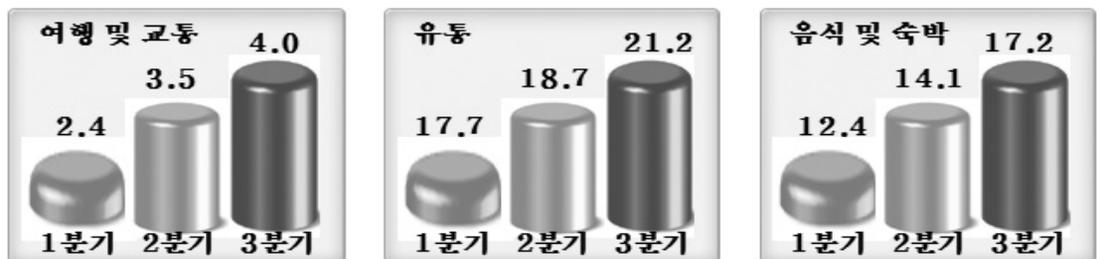
2010년 제주지역 소비는 전반적인 호조세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대형마트판매액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절효과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성수기(8월)의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또 하나의 소비지표인 신용카드 이용액을 보면, 2010년 들어 증가폭이 급격하게 커진 모습을 보였다. 특히 관광관련 소비유형별 일평균 신용카드이용액을 보면, 관광성수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관광객 수 증가가 제주지역 소비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 통계청

〈그림 5〉 연도별 제주지역 대형마트판매액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제주본부

〈그림 6〉 2010년 소비유형별 일평균 신용카드이용액

## 5) 물가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식료품 물가 상승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서비스가격의 경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상품 가격의 상승은 올해 유난히 기상조건이 좋지 않은데 영향을 받아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IV. 2011년 제주경제 전망과 정책목표

2011년 제주지역 경제전망을 위해, 여기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 I은 제주경기종합지수의 경기상황이 반영된 시계열 모형을 설정, 이에 근거한 예측치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II는 시나리오 I에 제주도정의 정책효과 반영에 따른 예측치를 산정한 것이다. 즉, 시나리오 II의 예측치는 2011년 제주도정의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시나리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2011년 제주경제는 시나리오 I 4% 내외, 시나리오 II 6% 내외로 전망된다.

## 1. 1차산업

2조 8천억원 조수입 목표 (2010년 대비 1,000억원 증가)

> 시나리오 I의 GRDP 성장률 + 0.3%

2011년 제주도정의 1차산업 분야 정책목표에 대해, 올해 보다 1,000억 원 증가한 총 조수입 2조 8천억 원으로 설정하여 정책효과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기존 시나리오 I의 GRDP 성장률에서 0.3%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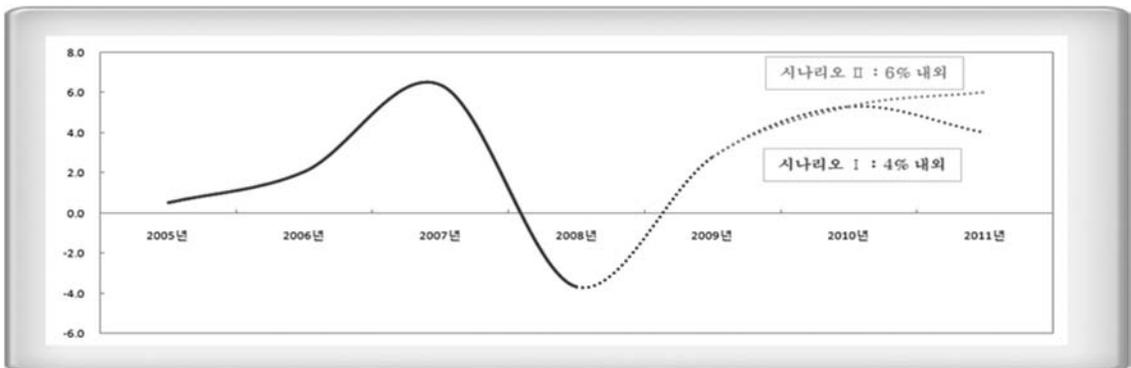
1차산업의 부문별 전망은 우선, 농업부문의 감귤의 경우 적정생산량인 6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월동채소는 2010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내년에는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축산업은 사육두수 증가 등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산업은 양식넙치 생산량 증가 및 수출경쟁력 확보에 따른 수출 증가폭이 올해 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2. 관광

2011년 외국인 관광객 목표 : 100만명 (2010년 대비 20만명 증가)

> 시나리오 I의 GRDP 성장률 + 1.3%



〈그림 7〉 2011년 제주지역 경제전망

다음으로 관광분야 정책목표는 올해 보다 20만 명 증가한 총 1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설정하여 정책효과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기존 시나리오 I의 GRDP 성장률에서 1.3%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 보면, 우선 내국인 관광객은 2011년 상반기 중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확대(국토해양부, 6% ↑)와 제주올레 체험관광객 증가(문광부, 52.9% ↑) 등으로 올해에 이어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은 내년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IMF, 9.6%)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유치계획이 잘 이행된다면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0년의 44만 명(JDI 추정치)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수출

2011년 수출 목표 : 3억 5천만\$ (4,050억 원, 2010년 대비 3천만\$ 증가)  
 > 시나리오 I의 GRDP 성장률 + 0.7%

수출은 민선5기 제주도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수출에 대한 2011년 정책목표를 올해 보다 3,000만 달러가 증가한 총 3억 5천만 달러로 설정하여 정책효과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기존 시나리오 I의 GRDP 성장률에서 0.7%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도내 총 수출은 3억 2천만 달러(JDI 추정치)로 지난해에 비해 23% 증가하였다. 이는 양식넙치, 앰프, 선박엔진 등이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011년에도 양식넙치 및 공산품 등의 지속적인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금까지 부진을 보였던 농축산물의 경우, 민선5기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그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